

“가신길 이정표 삼아 정진하겠습니다”

지관스님 영결식 6일 해인사에서
1만 사부대중 추위 속 애도 물결

한국불교의 대표 학승 지관 스님의 영결식이 1월 6일 해인사에서 진행됐다.

차가운 날씨 속에 진행된 영결식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 종회의장 보선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원행 스님 등 1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또한 최광식 문화관광부 장관, 권양숙 여사 등 정관계 내빈들도 다수 참석해 지관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했다.



1만여 대중들은 지관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따르며 스님의 유지를 잇기를 서원했다. 사진은 스님의 법구를 경국사에서 해인사로 이운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thyunbul.com

불교 면목 바로 세운 종장 “환도중생 지혜보장 여소서” 정부 금관문화훈장 추서

중 모두 부단히 탐마해 종단의 가풍을 바로 세워 존경받는 승단이 될 것이다. 이 일은 종단이 앞장서고 25개 교구본사가 힘을 합쳐 2000만 사부대중이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짐한다”고 밝혔다.

호계원장 법등 스님도 조사를 밝히고 “스님 가신 길을 이정표 삼아 올곧은 수행자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조의문을 보내고 지관 스님의 입적을 추도했다. 정부는 또 민족문화 창달과 국민교화에 노력한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광식 문광부 장관이 대독한 조의문에서 “대종사는 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는 마음을 비우고 참으면서 오직 나라를 위해 일해 달라고 당부하셨다. 대종사는 입적하셨지만 당부대로 모든 국민이 편안할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셨다”고 밝혔다.

영결식에서는 각 계 대표의 헌화와 분향

이 이어졌다. 원로회의 수석부회장 밀운 대종사 등 원로의원들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신흥사 조실 무산 스님 등 원로의원·대종사스님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중앙종무기반 부실장 스님, 전교비구니회 스님들의 헌화가 이어졌다. 또한 일한불교교류협회 이사장 니시오카 료오코 스님, 대만불광산사 주지 심배미 스님, 태고종 부원장 청봉 스님,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 스님 등도 헌화에 참여했다.

스님들의 헌화가 끝난 뒤에는 정관계 인사들의 헌화가 이어졌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양숙 여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통합진보당 심상정 대표, 국회 정각회 최병국 의원, 송영길 인천시장, 권영세 의원, 주호영 의원, 신성범 의원(이상 한나라당), 이미경 의원, 최재성 의원(민주 통합당) 등이 헌화를 했다.

영결식 후에는 1500장의 만장이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속에서 스님의 법구가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대만 불광산사 회주 성운 스님의 ‘혜등서거(慧燈西去: 지혜의 등이 꺼지다)’가 만장의 앞 길을 열었다. 그 뒤를 수많은 사부대중이 스님의 법구를 뒤따르며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스님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종정 법전 스님 법어

종사는 일찍이 우리 종문에 귀의해 일념정진으로 삼장을 통달하고 일승의 현의를 터득해 교학의 지평을 넓혀서 우리 종문을 빛낸 눈 밝은 종장이었습니다. 종사는 임문자재하는 법계의 자유인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안심 입명처에 성색이 사라졌으니 어떤 것이 종사의 본래면목입니까

지관 스님의 다비장은 성철 스님과 해암 스님의 다비를 치른 곳이다. 사부대중들은 다비장을 가득채운 채 합장을 하고 스님의 법구를 맞이했다. 스님의 법구가 지화로 단장된 연화대로 들어가고 거화의식이 진행되자 보살들은 곳곳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스님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합장을 한 채 스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문도 스님들과 해인사 스님들은 다비가 끝날 때까지 다비장을 지키며 외호할 예정이며, 사리 공개 여부는 아직 문도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지관 스님의 은사좌 세민 스님은 “은사 스님을 떠나보내려니 잘 모시지 못하고 건강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한 것 같아 가슴이 뻐다. 스님은 불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스승이었다. 엄한 경책과 자비의 미소를 지닌 스님이 더욱 그리웠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봄바람처럼 따뜻하면서도 엄하신 분이었던 스님. 굳은 의지로 불교 자수성 확립과 종교 화합을 위해 노력하셨다. 지관 스님이 강원에 계실 때 강의하신 모든 교재와 자료가 40권 분량으로 발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k2@thyunbul.com

떠나심 슬퍼함에는 모두 한마음

빈소에 정·관계 인사 및 불자들이 조문 발길
이웃종교·조불련·일한불교협도 조전

지관 스님의 입적 사실이 알려진 직후 서울 경국사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2일 밤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조문했다. 자승 스님은 “안타까운 일이다. 대종사께서 가시는 길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전했다.

3일 오전 9시 30분경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경국사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생전에 보았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청와대에 오셨을 때 <가산불교대사람>을 완성시켰다고 책을 가져오신 일이 있다”며 스님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친필로 “높은 인품과 학품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라고 남겨 지관 스님에 대한 추모의 뜻을 전했다.

이후에도 조계종 교육원장 현운 스님, 사회부장 혜경 스님, 총무부장 영담 스님 등 교역직 스님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한 명속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이해찬 前 국무총리, 명진 스님 등도 조문했다.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도 불자들의 조문이 끊이지 않았다. 각계 인사들도 분향소를 찾아 지관 스님의 입적을 추모했다.

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유영숙 환경부장관 민주통합당 지도부 권영세·정범구·천정배 의원,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다. 4일에는 정몽준 의원, 심상정 통합진보당 대표 이상득·조윤선 의원,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이 조계사를 찾았다.

5일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의원, 유인촌 前 문화부 장관, 이재오 의원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분향 후 자승 스님을 예방한 유영숙 장관은 “훌륭하신 스님인데 안타깝게 됐다”며 조의를 표했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 대표도 “뒤편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3일, 정진석 천주교 추기경도 애도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 추기경은 “진심으로 애도하며 불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평생 학문에 정진하시면서도 중생들에게 많은 위로와 사랑을 주셨던 지관 스님의 입적은 큰 아픔을 잃은 국민들의 큰 슬픔이다”고 애도했다.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는 같은날 조전을 조계종에 발송했다. 김희중 대주교는 “불교 발전과 종교간 화합에 크나큰 기여를 하신 스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데 대해 많은 불자들이 슬픔을 함께한다. 지관 스님께서 보여주시는 화합과 일치적 정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천불교전승가회도 같은 날 애도 논평을 발표했다. 실천가회는 “대종사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한 수많은 불교 저서는 한국불교의 소중한 자산이자, 후학이 걸어가야 할 훌륭한 수행 지침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종교화합과 평화를 위해 숭선했던 모습과 고통 받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큰스님의 따뜻한 이타행은 인연의 사표가 되어 길이 기억될 것이다”며 스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도 4일 조계종에 조문을 발송했다. 조불련은 “지관 스님은 학승으로서 불교의 현대화,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 6·15 공동선언 리행을 위한 현실참여행에 헌신했다. 조계종 사부대중이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민족자주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해 불심화합해 용맹정진 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일한불교교류협의회도 6일 조전을 발표하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마야바시 소·겐 일한불교교류협의회 회장은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한다. 생전 세월을 걸친 지도와 깊은 우정에 감사하다. 특히 한일불교 교류를 위해 전력하신 것에 경의를 바친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조계종 종단장으로 치뤄진 지관 스님의 영결식에는 1만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영결식장에서 애뜻함을 표하는 만상좌 세민 스님



해인사 다비장에서 엄수된 지관 대종사 다비 모습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전 경국사 지관 스님의 빈소에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산불교대사람’을 전하던 스님을 회고하며 큰스님의 열반을 아쉬워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산스크리트어)

상표등록 40-2011-0049176 / 디자인등록 30-2011-0038559
가격 : 31,000원
단체주문 환영

참선자, 수행자, 수험생, 학업자 소원 성취의 옷

침향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에서 향균효과가 가장 뛰어나 공기정화에 탁월합니다.

사람의 체온에 해당하는 36°도 이상의 열을 받을 때부터 그 기운을 발하기 시작하며 위를 따뜻하게 하고 몸 속에 나쁜 기를 내려주고 기의 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사기(邪氣)를 몰아내어 머리를 맑게 해주어 한의학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부처님의 향으로 최고의 수행과 참선을 할 수 있는 중생체도로 탁월한 하늘이 내려준 천연향이며 향기를 내는 신비한 물질이다.

삼각법(삼각기법)을 통하여 참선과 수행자의 중심이 되어 기가 가장 많이 모여지며 심신이 안정되어 소구하는 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산스크리트어)는 일체의 소망을 성취케하고 복을 받게 하며 무적이며 일체중생이 윤회하는 삼유(三有)의 길을 청정케 하는 것이다.

색중에서 적색(빨강)과 흑색을 교합하여 흑색은 깨우침, 팔정도(정경, 정어, 정념, 정업, 정명, 정사유, 정정진, 정정)의 의미로 적색은 항상 쉬지 않고 수행하라는 정진을 상징합니다. 글자 하나 하나마다 금박과 침향이 무한한 기운으로 변하여 부처님의 자비로 일체 중생을 성취케하는 깨달음의 옷입니다.

모든 보시금은 대불전 불사에 쓰여집니다.

불자라면 가족 모두가 깨달음의 옷으로 소원성취 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우 능 식 031)898-5698 / 010-2589-7280
우체국 104604-01-005265 [예금주 : 우능사]

빨강색 (액운, 액살 소멸), 노랑색 (부름 상징)
졸업선물, 각종 선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당가격 : 23,000원 1SET : 45,000원
단체주문 환영